

주님의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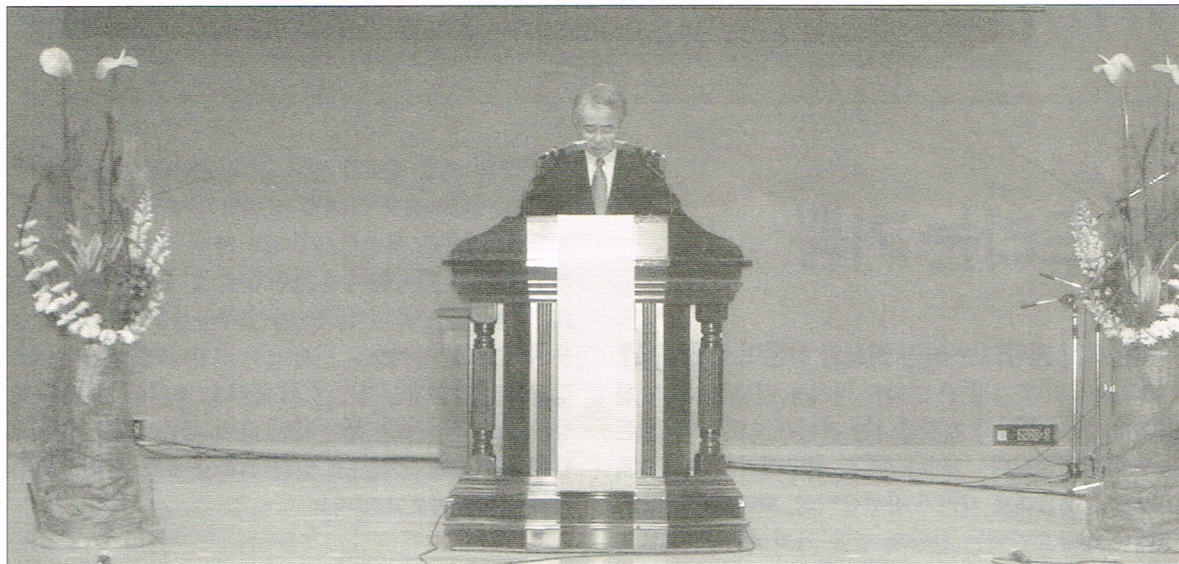
통권 제 66호_발행일 : 2004년 1월 11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롬 12:15)
2004년 교회표어: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 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_02-416-5181_www.pcltv.org

기사제보: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자에게,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신년 메시지]

신뢰, 희망, 사랑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지난주일 담임목사는 주일 설교를 통하여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고린도전서 13:13절을 중심으로 “신뢰, 희망,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담임목사는 설교를 통해 올 한해 우리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회복되기 원하는 3가지로 신뢰, 희망, 사랑을 강조했다. 점점 우리 사회는 신뢰하지 못할 환경으로 흘러간다. 신뢰보다는 불신이 더 팽배해져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신뢰를 상식으로 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누군가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신뢰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불신의 사이클을 끊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다. 다음은 희망이다. 우리는 흔히 희망 아닌 것에 희망을 건다. 소극적이고 정적인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 빠지거나 파괴적인 마음으로 슬로건이

나 모토를 통해 희망을 강제로 앞당기려는 과격한 모습도 진정한 희망이 아니다. 진정한 희망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결과에 관계없이 희망을 바라는 삶의 태도요 마음의 자세이다. 그리고 진정한 희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마지막으로 회복할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신뢰와 희망의 기초이며 모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우리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들은 올 한해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할 3가지를 책임 받았다. 그것은 무너진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사라진 희망을 다시 찾아내며 가려진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일이다. 올 한해가 마무리되는 올 연말에는 이 3가지가 성도들 각자의 마음과 삶에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더 든든히 확산되는 귀한 열매가 더 풍성해지를 기대해본다.

[교회학교 소식]

초등부 교사 10명 이 너무 필요해요

2004년 교회학교 초등부(3-4학년)에 새로 편성된 아이들은 151명이다. 원래는 13반까지 있었는데, 현재 3학년은 7반까지, 4학년은 8반까지 편성이 되어 있다. 이유는 교사의 수가 부족하여 각 반의 학생수를 늘리면서 학급수를 줄였기 때문이다. 한 교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해 잘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6명인데 현재는 11명에서 12명을 맡아야 하는 실정이다. 6반이상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교사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초등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회 학교의 교사들이 부족한 상태이다. 다른 재직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청소년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초등부 총무부장을 맡은 박지원집사는 특히 청년교사보다는 기존 집사들이나 성도들 중 장년층인 분들이 교사로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교회 장년층들이 청년의 마음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 교사로 자원해주었으면 좋겠다. 교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1층 로비의 자원봉사연결데스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교역자수련회]

주님의교회를 더 주님의교회 답도록 섬기기 위해



지난 주일 5일(월)부터 7일(수)까지 주님의교회를 섬기는 모든 전임 교역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2004년을 계획하는 신년 목회자 수련회를 가졌다. 이번 수련회에는 지난 주일에 부임한 신임 교역자 4명(우동운, 이호, 정영환, 윤은성 목사)도 함께 참석했다. 2박 3일의 기간동안 담임목사의 목회철학(CCCM: Community, Contagious, Concentration, Multiplication)과 목회비전 그리고 NCD(Natural Church Development)의 8가지 핵심가치들에 대한 비전 캐스팅과 함께 신임 교역자들의 삶과 목회 이야기를 듣고 서로 친교를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다. 이 수련회를 통해 모든 교역자들은 2004년 새해 주님의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며 교회가 더욱 주님의교회 답도록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천사의 얼굴을 가진 아이들이 사는 곳

화영이는 늘 천장만 바라보고 사는 아이이다. 팔다리는 가늘다 못해 서로 꼬여 있고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가 훨씬 지났지만 마치 5살 아기 같다. 그 아이의 눈은 맑은 호수와도 같다. 말도 못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무엇이 그리 좋은지 늘 행복하게 미소 띤 얼굴은 한 화영이는 바로 천사의 모습 그대로다. 서울 끝자락으로 가다보면 마천동이란 동네가 있다. 서울인데도 마치 어느 농촌에 온 듯한 발들 가운데 33년 된 작은 한옥 집에는 3살부터 20살 이상인 중증 장애아들이 생활하고 있는 '소망의 집' 이 있다. 아이들은 대부분 신체장애와 자폐가 심하고 병이 깊어 하루를 가슴조이면서 살고 있다. 아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식 복지법인 되지 못하여 자원봉사와 후원으로 꾸려 나가고 있는 곳이다. 제 6 여선교회에서는 매달 두 번째 주 월요일에 그곳을 방

문하여 목욕봉사와 점심을 아이들에게 먹여 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 소망의 집과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4년이 되었는 데도 그곳에 갈 때 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 미약하여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김연희A 집사

성결하게 구별하여 찬양을 드리는 기쁨

날은 이미 어두웠고 친교실은 무척 추웠지만, 집사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니 친교실은 어느새 따스한 사랑방이 되어 있었다. 바쁜 신 중에도 6일 저녁 7시30분, 교회 친교실에서 성심껏 답변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교회는 언제부터 어떻게 나오게 되셨는지요?

임영수 목사님 오시고 나서 출석하게 되었어요. 소망교회에서 83년부터 93년까지 10년간 지휘하고 물려나 평신도로 있을 때, 주님의교회가 3부 찬양대가 결성되어 전문적으로 찬양대를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왔어요. 사실, 이제철 목사님이 주님의교회를 시작했을 무렵에 김도목 장로님과 양동욱 장로님에게 와 달라는 권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대신해서 제자인 박치용 집사님(현 2,3부 찬양대 지휘자)을 보냈지요. 그래서 박치용 집사님은 주님의교회 초창기 멤버가 된 겁니다. 운명적으로는 처음부터 왔어야 했던 거죠. 교회음악감독이란 어떤 음악을 언제 부를지 전문적으로 관장. 집행하는 사람으로, 아직 우리나라에는 음악목사제도가 없으니까 감독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감독이라는 어감이 권위적으로 느껴져 교회음악전문위원이라 부르기로 했지요. 이 역할을 맡다보니 주일 1~3부 예배를 다 참여해 찬양대를 모니터 해왔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일을 맡다보니 올해는 음악위원회를 사임한 상태이지요. 3~4년전만 해도 예배위원회안에 음악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음악위원회는 현재 대장, 총무, 지휘자등이 모여 구성되어 있구요. 각 찬양대가 예배담당하면서 어떤 음악을 사용해야 할지 크리스마스부터 시작해 고난절, 부활절, 강림절 순으로 테마와 설교말씀에 맞추어 고민하고 선택합니다. 그냥 맘대로 쉽게 결정하는 게 아니지요. 독창자는 음악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선정하는데 주로 감독과 지휘자가 상의해서 하게 됩니다. 현재 한나숙(소프라노), 이혜숙(알토), 장철(바리톤)집사님들이 담당하시는데 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음악가로서 그런 집사님들이 주님의교회에 계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찬양대는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었나요?

작년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박치용 집사님이 2개 찬양대를, 한 지휘자가 지휘했다는 것이겠지요. 여러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개의 찬양대가 기본적으로 정착했고 나름대로 자리가 잡혔습니다. 최근 2~3년의 과정에서 성금요일에는 찬양의 밤을 가져 수난곡을 하고 성만찬시간을 가졌지요. 또 창립주일에는 축하음악회, 성탄절에는 성탄축하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이 전에는 이런 음악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메시지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앞으로는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발전하고 성숙해야겠지요.

찬양대의 역할과 마음가짐은 무엇이며 성도들은 어떻게 화답해야 하나요?

찬양대의 목적은 찬양을 부르는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들려주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만 교인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월드컵을 할 때 히딩크 감독의 지도아래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지만 만약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면 소용이 있겠어요? 교인들이 찬양에 감동되어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아직 교회 연주가 없어서 성장한지 얼마 안 되어 지금은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는 게 좋습니다. 찬양대는 찬양을 할 때 교인들의 마음을 다 전달받습니다. 교감이 긴밀하게 오갈 때 집중하고 반응되는 효과가 생기지요. 목사님 설교말씀도 그렇듯이 말입니다.

예배시 성가대나 찬양하는 분께 박수를 치는 것은 어떤가요?

예배 때 사람에게 보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에 '아멘' 화답하는 것은 좋지만 박수는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예배 때 무대에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가끔 목사님께서 박수를 권유하시긴 합니다. 어느 것이 꼭 좋다고 할 수 없지만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식 음악가로서 요즘 CCM 복음성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교회음악은 그 시대 흐르는 음악과 변화를 주고 받습니다. 모차르트 음악등도 당시 기준에 세속음악처럼 치부되었거든요. 이렇듯 세속음악과 영향을 주고받지요. 기존 사고방식과 대치는 있어왔습니다. 부딪치게 마련이지요. 현재 CCM 복음성가는 교회음악에서 어떤 면으로는 아직 검증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찬양에 있

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70장이전은 예배찬송으로 아주 고전의 찬송입니다. 그러나 300~400장등은 복음성가였다가 오랜 세월 익숙해지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져 찬송가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복음성가는 무디 선교사등이 부흥집회 때 더욱 감동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배에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새로운 찬양을 시도하는 것은 많이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지휘자들이 은연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복음성가를 곁들여보고 있지요.

찬양대만 너무 특별하게 구별되는 것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레위족속, 선택받은 사람이 찬양을 해야 했습니다. 찬양도 하고 찬 것도 한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찬양만을 연구해온 겁니다. 구별하여 드러진다는 의미기에 구교에서는 제단안에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만인제사장론이 있기에 평신도도 언제든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때 드러지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찬양과 기도입니다. 성결하게 구별하여 찬양을 드린다는 의미로 가운을 입게 됩니다.

중고등부나 청년부예배에서 성가대가 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지요?

문제는 사실 사회적 현상에서 비롯된 겁니다. 지금 고등부, 청년부에 성가대가 없어요. 과외공부하랴 아이들이 너무 시간에 쫓기다보니 많은 시간 노력해야 하는 어려운 음악은 못하고 쉬운 찬양이나 악기만을 다루려고 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성가는 당연히 대체보지 못한 낯선 찬양으로 여겨질 겁니다. 앞으로 이런 gap이 성가대의 충원을 이루지 못할 것은 당연하지요. 앞으로 그런 문제를 놓고 계속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양대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례교인일 것, 교회출석한 지 일정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찬양대별로 규정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자격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몇 주는 연습만 먼저 참여하고 그 후 예배 시 성가대 자리에 앉는 것이지요.

앞으로 개인적인 소망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목사님 집 안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늘 교회음악을 접하며 살아왔습니다. 중,고등학교때는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활동했지요. 대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교 음악적인 분위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라 저절로 그 영향도 받고 서울대 음대를 나와 독일유학을 다녀왔어요. 성가대 대원으로 독창자로 3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음악감독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독창회, 앙상블이 있고 음반제작도 들어갈 겁니다.

신지민, 김영미 기자

청소년 문화, 이제는 예수님 중심의 세대로 바뀐다

2003년 12월 27일! 고등부는 작년 연말을 Jesus Generation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중예배실에서 열린 찬양예배를 드렸다. 2003년을 마무리하며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세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귀한 예배였다.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었던 것은 찬양예배를 준비하는 고등부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과 삶의 변화였다. 맨 처음 연습할 때와는 다르게 시간이 거듭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었다. 이것이 아이들을 지켜보는 교사인 우리에게 큰 감격이었고, 기쁨이 되었다.

찬양예배 중간에 Liberation(자유)이라는 이름의 복음전도 드라마를 했었는데 천지창조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를 표현한 드라마였다. 그 중에 한 장면이 계속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쁘게 창조하신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 속에 빠져 지내다가 결국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묶임을 받아 소망도 없이 멍하게 방치되어 있는 장면이

다. 사단은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고개를 들고 크게 웃음을 짓는다. 이러한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안타까워하며 사람들과의 사이에 있는 벽을 계속 애타게 두드리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들을 위해 갈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고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사람들을 위해 오신다. 그리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다. 묶여있었던 사람들이 그 자유함으로 인해 매우 기뻐하는 장면이다. 이 땅위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가슴 뭉클하게 느껴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지는 못했지만 이날 드려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켰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세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했다. 2004년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세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고등부와 주님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박혜경 교사



[호산나찬양대]

2년간의 호산나 찬양대 총무직을 마치며



2004년 첫 주 5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찬양 연습 후 2년 동안 수고했던 호산나 찬양대 집행부의 이,취임식이 있었다. 신임 대장에는 부정희 집사님이, 신임 총무에는 이상록 집사님이 각각 선임되었다. 지난 2년간 한 주도 거름 없이 신실하게 우리대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연습과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이른 새벽부터 차와 간식을 준비하여주신 신정웅 대장님, 김금숙집사님 내외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이날은 신임 대원으로 10명이 등록하여 앞으로 호산나 찬양대원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막상 2년간의 총무생활을 끝내고 보니 좀 더 잘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1999년 여름부터 틈틈이 예배만 드려왔던 우리 내외는, 계속 이렇게 편하게 주일예배만 드려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2001년 첫 주에 등록을 하고 당시 대장이시던 최경호 집사님께 허락받아 호산나 찬양대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주일 새벽 6시경에 시작하는 연습시간에 맞추어 아내와 함께 교회에 오는 것은 처음에는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한 주간 중 유일하게 늦잠을 잘 수 있는 주일날을 새벽 5시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은, 지금은 아주 익숙한 일이 되었지만 초기에는 밤새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모닝콜을 무시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화들짝 놀라 깨어나 연습시간 끝 무렵에 가까스로 도착했던 기억도 새롭다. 1년을 그렇게 보낸 후 2002년 첫 주에 신임 대장께서 느닷없이 총무로 일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겨우 1년을 지낸 신참자로서 그때의 황당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나이 40

대 중반이 지난 그 당시에도 남자 대원들 중 최연소였으니 제일 젊은이에게 총무 일을 맡겼나보다 생각하여 순종하기로 하고, 대원들에게는 다른 일에 신경 안 쓰시고 찬양 연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인사를 하였다.

지휘 박영주 집사님과 호흡을 맞추어 악보 준비하는 일, 새벽같이 나온 대원들의 간식 준비하는 일들, 총무로 일을 시작하자마자 3월 1일 수련회를 준비하던 일, 처음으로 우리 대원들의 사진이 들어간 수첩도 제작하였고, 중강당 건축 기간동안 학교 5층 음악실을 오르내리며 연습준비에 혈땀었던 일, 창립 14, 15주년 기념음악회를 우리 대원들 거의 100% 참여 하에 치렀던 일들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뻘뻘하다. 음악회 자체보다도 준비 기간 2개월여에 걸친 우리 대원들이 함께 한 시간과 열정을 생각하면 우리 호산나 찬양대 대원 모두가 자랑스롭다.

오전 10시경 연습을 마친 후 한 때는 매달 인근의 산으로 산행을 같이 하기도 하였고 2002년 가을에는 체육대회를 통해 나이를 잊고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뛰고 넘고 노래하고 춤추는 시간도 가졌고, 2003년의 가을에는 과천 산림욕장의 2시간여의 산행동안 무릎과 허리가 불편하신 노 대원들까지도 서로 부축하며 격려하여 완주할 수 있었던 일도 기억에 새롭다. 오랫동안 함께 찬양대에서 고락을 함께 하였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아픔도 있었고, 베이스로 함께 찬양하던 김이철 집사님이 2002년 가을에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현재까지도 깨어나지 못하여서 우리 모두의 안타까운 기도제목으로 남아있다. 전체적으로는 대원들이 꾸준히 늘었고, 2003년도에는 가운정리와 악보관리를 분담하여 맡아주신 신광이, 이상록 두 분 집사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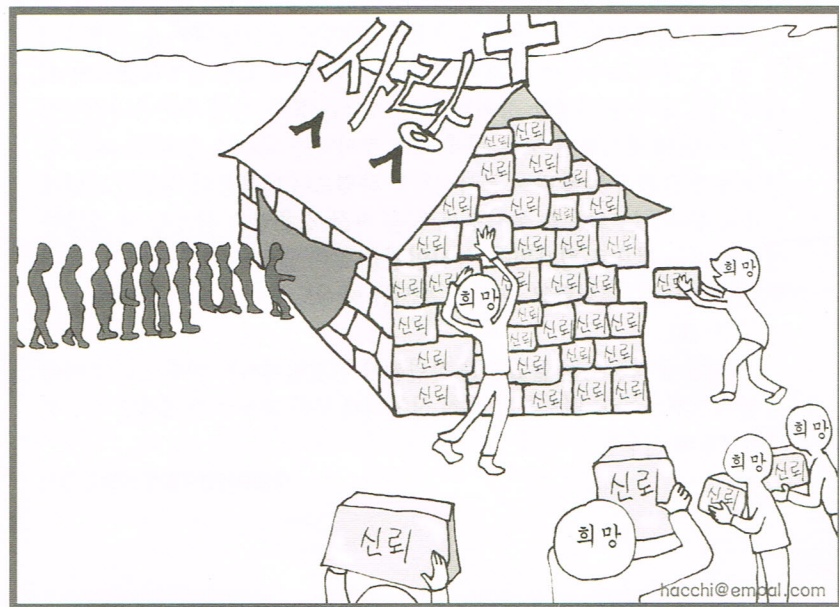
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항상 간식과 커피봉사를 남에게 뒤질세라 앞장서서 해 주신 임근원, 변재호 집사님, 특히 2년간 같이 수고해 주신 각 파트장들의 헌신적인 대원관리로 인해 오늘의 탄탄한 호산나 찬양대가 되는데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린다.

호산나 찬양대의 장점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드리는 것과 주일을 일찍 시작하여 일찍 끝난 후(오전 6시-오전 10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후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는 것도 부지런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닌가 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원하시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맡겨준 총무직분을 수행하는 동안에 몸은 비록 힘들 때도 있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우리 대원들을 섬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많은 신실한 교우들을 알게 된 것도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평 대원으로 돌아가지만 신임 총무님의 일을 성심껏 도와 드리며 여전히 우리 대원들을 기쁘게 섬길 것을 다짐해 본다.

김학원 집사



{교회소식}

1. 2004년 교육부 예배 신설

주일 2부예배시(오전 9시 30분) 통합유아부가 신설되어 취학전 유아와 기존 유아 1부를 유아부실(1층)에서, 또한 통합아동부는 1-6학년 어린이 대상으로 3월부터 유년부실(1층)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수요성경공부시에도 탁아부가 3월부터 신설됩니다. 교우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중등부 동계 수련회 안내

교회학교 중등부 2004년 동계수련회가 1월 26일(월)~29일(목)까지 경기도 여주 구로 중앙수련원에서 있습니다. 이번 동계수련회는 올네이션스 24기 중등부 경배와 찬양학교와 함께 합니다. 해당되는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제직수련회

제직수련회가 2월 8일(주일)~9일(월) 이틀간 있을 예정입니다. 새해 제직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은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리더훈련반 개강 안내

리더훈련반이 오늘(11일) 개강합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 장소는 3층 초등부실입니다. 관련되시는 분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2004년 교회학교 교사 모집

2004년 교회학교를 섬길 교사들의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모든 부서들이 교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기대합니다.



[2004 제직부서 봉사활동을 위한 자원봉사 연결 박람회]

계속되어야 할 교우들의 봉사와 섬김의 물결

작년 12월 28일 주일과 금년 1월 4일 주일의 2주간에 걸쳐 자원봉사 연결팀 주관으로 1층 로비에서 열려 각 부서의 부장 및 팀장들이 신청을 받은 자원봉사 박람회에서 많은 교우들이 2004년 봉사할 부서를 신청하였다. 총 257명의 교우들이 교회의 55개 부서 및 팀에 고루 신청하였으며 여러 부서에 봉사를 신청한 경우를 각각 계산한 봉사 신청 수는 312건이었다. 2003년에 봉사하던 부서/팀에 계속 봉사하는 교우들 중 아주 적은 수의 교우가 같은 부서에 다시 봉사신청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금년에 신규로 봉사하는 교우와 봉사부서/팀을 바꾼 경우임을 감안할 때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봉사인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조부, 안내부, 주차안내부, 교회학교 등 몇몇 부서는 아직도 봉사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원봉사 박람회는 끝났지만 자원봉사 연결팀에서는 연중으로 로비에서 봉사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교우는 언제든지 자원봉사 연결팀에 신청할 수 있다.

자원봉사연결팀장 남장희 집사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1. 정기 예배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2.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통합아동부는 3월부터 시작됩니다.)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

3.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식사하시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4.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6. 친교실(1층) 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주일 및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